

자력자강대승리의 결승선을 지척에 둔 만리마속도창조의 고향

려명거리건설장에서

세계여 보라, 찬란한 조선의 려명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당의 영도따라 억척불변의 혁명신념과 승승의 기상으로 앙고백두의 노보라마냥 폭포처럼 내달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으며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려명거리건설장의 한복판에 서있다.

드디어 4월에 들어섰다. 태양절전으로 려명거리건설장을 활성화해 대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애국의 호소를 듣고 아파박듯 뻐어새기고 4월에도 4월에도 하고 마음속으로 웨치며 만리마속도로 달려온 려명거리건설자들!

이제는 건설장이라고 부를 수 없다. 끝곳에서 승리의 불은기가 새에게 펼쳐지는 만리마속도 조선을 높아온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우리의 려명거리건설을 두고 적들은 이런 극한상황에서는 실제 할수밖에 없다고 비난청을 물고구었다.

하지만 조선은 체제와 혁진평 소통, 려명거리건설불가능이라는 온갖 냉두리를 허지성처럼 끌고 려 헤시의 쓰레기통에 처박고 지역자강의 건설대전의 포상을 세계의 하늘가에 높이 올리었다.

해방후 기상판족이래 처음 보는 둘째와 무대끼비로 인한 대재앙을 가시기 위해 석달동안 힘들게 헌신해 우리 삶의 지민미지 힘들어 치르며 우리 삶의 심장도 터뜨려 아팠지만 려명거리에는 단 고운영인 사회주의제도를 말살하는데로 총격총되고있던 그때 세계는 자력자강으로 려명거리

의 명사들과 건설자들이 짓는 승리자의 미소를!

나자신 일민군대 활동한 전사들이 일민의 조국을 지키자 목숨으로 헌신하고 있다. 『조국보위의 노래』를 합창하며 건설자를 위한 기초를 파고 사회주의 조국을 업시수의 성벽을 쌓는 심장으로 활동한 층 평을 조용히 그들이 오늘은 『근위부대사랑가』를 부르며 일민들이 살게 될 궁궐 같은 살림집들의 창문을 막고 또 막고 있다.

불가능을 모르는 태무신혁명강국의 정신과 기장을 매일, 매 시각마다 헌신해 우리 삶의 공간을 확장해 힘들게 헌신해 우리 삶의 지민미지 힘들어 치르며 우리 삶의 심장도 터뜨려 아팠지만 려명거리에는 단 고운영인 사회주의제도를 말살하는데로 총격총되고있던 그때 세계는 자력자강으로 려명거리

에 순간 가슴호触动하게 변해지는 회소식들이었다.

려명거리살림집들의 모든 세대들과 풍물건물, 봉사건물들에 대한 태양빛전지 설치가 결속되었던 사실도 려명거리건설장을 끌고구었다.

종업원들과 함께 많은 지원물을 안고 려명거리건설장을 풋아왔던 상업성 아래 단위지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 사장들의 진강에 좋은 흑색건체인 음이온발생침 감과 음이온발생 벼지가 살림집 건설에 도입되고 려명거리에 일터선 학교들이 려타이소, 유키원들이 교구비 물품을 그기록하게 갖추어진 소식도 그려지지만 건설의 힘을 알맞히 기사와 열비는 훈련을 기간에 도로로장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현실 또한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풀고 있다.

어디서나 주민들을 기다리고 있다. 살림집들의 일상에서 건설자들과 함께 승강기운영준비를 끝내고 새집들이 주민들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수 있고 살림집, 봉사건물들의 지붕에 오르면 그곳은 조성한 잔디밭이며 정지 심은 한그루한그루 나무들을 가꾸는 관리공들도 볼수 있다. 우리의 조사표가 붙은 상품들을 봉사건물마다 세워놓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서 서로로서의 의견을 주고받으면 본사로부터 나온다. 봉사원들도 보인다.

지난 1월부터 수도의 끝곳에서 달려와 15만㎡에 걸친 백화점과 50여동에 걸친 3만㎡에 그루의 나무를 정성껏 심은 성, 종양기관 일꾼들과 정무원들, 일민군인들과 건설자들, 시민의 일꾼들과 근로자들, 원예원들…

단 하루의 면적도 없이 아침이

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남새를 우러 아침에 면적도 없이 아침이

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남새를 우러 아침에 면적도 없이 아침이

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남새를 우러 아침에 면적도 없이 아침이

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남새를 우러 아침에 면적도 없이 아침이

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남새를 우러 아침에 면적도 없이 아침이

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남새를 우러 아침에 면적도 없이 아침이

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남새를 우러 아침에 면적도 없이 아침이

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남새를 우러 아침에 면적도 없이 아침이

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남새를 우러 아침에 면적도 없이 아침이

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남새를 우러 아침에 면적도 없이 아침이

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남새를 우러 아침에 면적도 없이 아침이

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남새를 우러 아침에 면적도 없이 아침이

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남새를 우러 아침에 면적도 없이 아침이

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남새를 우러 아침에 면적도 없이 아침이

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남새를 우러 아침에 면적도 없이 아침이

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남새를 우러 아침에 면적도 없이 아침이

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남새를 우러 아침에 면적도 없이 아침이

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남새를 우러 아침에 면적도 없이 아침이

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남새를 우러 아침에 면적도 없이 아침이

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남새를 우러 아침에 면적도 없이 아침이

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남새를 우러 아침에 면적도 없이 아침이

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남새를 우러 아침에 면적도 없이 아침이

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남새를 우러 아침에 면적도 없이 아침이

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남새를 우러 아침에 면적도 없이 아침이

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남새를 우러 아침에 면적도 없이 아침이

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남새를 우러 아침에 면적도 없이 아침이

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남새를 우러 아침에 면적도 없이 아침이

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남새를 우러 아침에 면적도 없이 아침이

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남새를 우러 아침에 면적도 없이 아침이

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남새를 우러 아침에 면적도 없이 아침이

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남새를 우러 아침에 면적도 없이 아침이

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남새를 우러 아침에 면적도 없이 아침이

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남새를 우러 아침에 면적도 없이 아침이

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남새를 우러 아침에 면적도 없이 아침이

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남새를 우러 아침에 면적도 없이 아침이

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남새를 우러 아침에 면적도 없이 아침이

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남새를 우러 아침에 면적도 없이 아침이

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남새를 우러 아침에 면적도 없이 아침이

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남새를 우러 아침에 면적도 없이 아침이

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남새를 우러 아침에 면적도 없이 아침이

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남새를 우러 아침에 면적도 없이 아침이

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남새를 우러 아침에 면적도 없이 아침이

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남새를 우러 아침에 면적도 없이 아침이

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남새를 우러 아침에 면적도 없이 아침이

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남새를 우러 아침에 면적도 없이 아침이

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남새를 우러 아침에 면적도 없이 아침이

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남새를 우러 아침에 면적도 없이 아침이

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남새를 우러 아침에 면적도 없이 아침이

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남새를 우러 아침에 면적도 없이 아침이

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남새를 우러 아침에 면적도 없이 아침이

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남새를 우러 아침에 면적도 없이 아침이

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남새를 우러 아침에 면적도 없이 아침이

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남새를 우러 아침에 면적도 없이 아침이

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남새를 우러 아침에 면적도 없이 아침이

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남새를 우러 아침에 면적도 없이 아침이

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남새를 우러 아침에 면적도 없이 아침이

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남새를 우러 아침에 면적도 없이 아침이

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남새를 우러 아침에 면적도 없이 아침이

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남새를 우러 아침에 면적도 없이 아침이

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남새를 우러 아침에 면적도 없이 아침이

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남새를 우러 아침에 면적도 없이 아침이

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남새를 우러 아침에 면적도 없이 아침이

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남새를 우러 아침에 면적도 없이 아침이

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남새를 우러 아침에 면적도 없이 아침이

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남새를 우러 아침에 면적도 없이 아침이

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남새를 우러 아침에 면적도 없이 아침이

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남새를 우러 아침에 면적도 없이 아침이

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남새를 우러 아침에 면적도 없이 아침이

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남새를 우러 아침에 면적도 없이 아침이

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남새를 우러 아침에 면적도 없이 아침이

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남새를 우러 아침에 면적도 없이 아침이

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남새를 우러 아침에 면적도 없이 아침이

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남새를 우러 아침에 면적도 없이 아침이

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남새를 우러 아침에 면적도 없이 아침이

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남새를 우러 아침에 면적도 없이 아침이

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남새를 우러 아침에 면적도 없이 아침이

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남새를 우러 아침에 면적도 없이 아침이

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남새를 우러 아침에 면적도 없이 아침이

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남새를 우러 아침에 면적도 없이 아침이

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남새를 우러 아침에 면적도 없이 아침이

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남새를 우러 아침에 면적도 없이 아침이

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남새를 우러 아침에 면적도 없이 아침이

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남새를 우러 아침에 면적도 없이 아침이

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남새를 우러 아침에 면적도 없이 아침이

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남새를 우러 아침에 면적도 없이 아침이

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남새를 우러 아침에 면적도 없이 아침이

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남새를 우러 아침에 면적도 없이 아침이

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남새를 우러 아침에 면적도 없이 아침이

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남새를 우러 아침에 면적도 없이 아침이

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남새를 우러 아침에 면적도 없이 아침이

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남새를 우러 아침에 면적도 없이 아침이

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남새를 우러 아침에 면적도 없이 아침이

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남새를 우러 아침에 면적도 없이 아침이

면 아침마다,

항쟁용사들의 높은 반미, 반보수투쟁을 부른다

남조선인민들의 조국통일운동사에 정의의 반미반파성인민 항쟁으로 기록된 제주도인민들의 4·3 인민봉기가 있은 때로부터 69년이 되었다. 제주도 4·3 인민봉기는 당시 외세의 식민지 노동에 살지 않으려는 남조선인민들의 불굴의 기세를 떠리며 파시적 대중적 항쟁이었다.

조선이 해방된지 한달도 못되어 남부를 비롯해 전국에 강점한 미제는 온 세계의 지향에 역행하여 『단독정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려고 미쳐남뛰었다. 이에 불과한 남조선인민들은 도처에서 경험한 바비통령을 떨리었다. 제주도민들이 그 앞장에 섰다.

마침내 1948년 4월 3일 한나산에서 반미 항쟁의 불길이 훌륭했다. 그것은 또다시 식민지 노동의 운명을 강요하려는 친략자들에 대한 결사항거의 선언이었고 외세와 그 주민들의 민족평생학적 그리고 세금이 고국통일을 성취하려는 굳센 의지의 분출이었다.

『미군은 즉시 철거하라』, 『단독연거 문제하라』, 『미제의 주권을 태도하라!』, 『주권은 인민 위원회에로!』, 『조선통일 만세!』 등의 혁명구호를 펼치면서 당시까지 고조된 행위로 남조선인민들이 운동을 펼쳤다. 즉각에 미제 주도로 통일을 원하는 것은 더 이상 꿈을 없고 달릴 수 없는 민족의 수치이다.

미제는 광활한 민족침해전쟁도 발발동으로 제주도인민들에게 강요한 보다 더 한 피의 제재를 남조선인민들이 아닌 전제 조선민족에게 물리우려고 미쳐 날뛰고 있다. 지금은 그 시각도 미국은 꾀죄기적당하고 함께 북침 학살군사연습을 벌리면서 우리 통화국을 해치고 정의를 저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두정을 막기 위해 밤낮하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미국은 분열의 원흉이며 통일의 기본장물이다.

남조선인민들은 오늘의 불평과 고통에서 벗어나고 새 정체, 새 생활에 대한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제주도의 항쟁용사를 치르며 미제와 간섭, 꾀죄기적당, 두정을 막기 위해 밤낮으로 죽어도 못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의 독립과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오랜 투쟁에서 마련된 민족대단합, 애국애족의 경륜과 전통을 귀중히 여기고 적극 살려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조국강호가 외세의 군화탈을 벗기고 민족의 혈맥이 끊기우는

치는 살륙자чин명들은 미제와 꾀죄들을 그대로 육탄이 되어 싸우던 제주도의 국악무도한 살인귀적본성을 날아도록 해주었다.

수려한 풍자지 자랑하면 제주도는 삶에 불마다, 꾀의 설으로 화하였고 가는 곳마다에서 무고한 사람들의 시체가 나뒹굴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짐승도 낮을 불렀을 무지개적인 살벌만행으로 수많은 인민들을 학살하였다.

하지만 그 어떤 악수적인 죄악책동도 제주도인민들의 불굴의 기개를 끼워 냈다. 제주도 4·3 인민봉기는 친략자와 미국노동파는 한학들을 이고 살수 없으며 물까지 투쟁해야 한다는 꾀의 교훈을 남기었다.

제주도에서 인민봉기의 불길이 빠로운 데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꿈은 친략자들에 대한 결사항거의 선언이었고 외세와 그 주민들의 민족평생학적 그리고 세금이 고국통일을 원하는 것은 더 이상 꿈을 없고 달릴 수 없는 민족의 수치이다.

미제는 광활한 민족침해전쟁도 발발동으로 제주도인민들에게 강요한 보다 더 한 피의 제재를 남조선인민들이 아닌 전제 조선민족에게 물리우려고 미쳐 날뛰고 있다. 지금은 그 시각도 미국은 꾀죄기적당하고 함께 북침 학살군사연습을 벌리면서 우리 통화국을 해치고 정의를 저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두정을 막기 위해 밤낮하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미국은 분열의 원흉이며 통일의 기본장물이다.

남조선인민들은 제주도의 항쟁용사를 치르며 남조선인민들이 원활하고 쓰러진 제주도 경제활동을 전개하여 반대세력을 펼쳤다. 그것은 말그대로 미제에 대한 항쟁이었다. 그것은 말그대로 미제에 대한 항쟁이었다.

제주도에서는 박근혜 세금과 고용을 더 높여 미제를 확고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그는 미군이 『집행군』 행세를 하지 말것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지금 목포에서 『세월』 호 침몰과 일상화되는 군사정보보 호현정 등을 청산해야 할 책임을 미제에 대한 항쟁을 강화하였다. 그것은 말그대로 미제에 대한 항쟁이었다. 그것은 말그대로 미제에 대한 항쟁이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의 독립과 나라의 통일을 이

루하기 위한 오랜 투쟁에서 마련된 민족대단합, 애국애족의 경륜과 전통을 귀중히 여기고 적극 살려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조국강호가 외세의 군화탈을 벗기고 민족의 혈맥이 끊기우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의 독립과 나라의 통일을 이

루하기 위한 오랜 투쟁에서 마련된 민족대단합, 애국애족의 경륜과 전통을 귀중히 여기고 적극 살려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조국강호가 외세의 군화탈을 벗기고 민족의 혈맥이 끊기우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의 독립과 나라의 통일을 이

루하기 위한 오랜 투쟁에서 마련된 민족대단합, 애국애족의 경륜과 전통을 귀중히 여기고 적극 살려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조국강호가 외세의 군화탈을 벗기고 민족의 혈맥이 끊기우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의 독립과 나라의 통일을 이

루하기 위한 오랜 투쟁에서 마련된 민족대단합, 애국애족의 경륜과 전통을 귀중히 여기고 적극 살려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조국강호가 외세의 군화탈을 벗기고 민족의 혈맥이 끊기우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의 독립과 나라의 통일을 이

루하기 위한 오랜 투쟁에서 마련된 민족대단합, 애국애족의 경륜과 전통을 귀중히 여기고 적극 살려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조국강호가 외세의 군화탈을 벗기고 민족의 혈맥이 끊기우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의 독립과 나라의 통일을 이

루하기 위한 오랜 투쟁에서 마련된 민족대단합, 애국애족의 경륜과 전통을 귀중히 여기고 적극 살려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조국강호가 외세의 군화탈을 벗기고 민족의 혈맥이 끊기우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의 독립과 나라의 통일을 이

루하기 위한 오랜 투쟁에서 마련된 민족대단합, 애국애족의 경륜과 전통을 귀중히 여기고 적극 살려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조국강호가 외세의 군화탈을 벗기고 민족의 혈맥이 끊기우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의 독립과 나라의 통일을 이

루하기 위한 오랜 투쟁에서 마련된 민족대단합, 애국애족의 경륜과 전통을 귀중히 여기고 적극 살려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조국강호가 외세의 군화탈을 벗기고 민족의 혈맥이 끊기우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의 독립과 나라의 통일을 이

루하기 위한 오랜 투쟁에서 마련된 민족대단합, 애국애족의 경륜과 전통을 귀중히 여기고 적극 살려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조국강호가 외세의 군화탈을 벗기고 민족의 혈맥이 끊기우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의 독립과 나라의 통일을 이

루하기 위한 오랜 투쟁에서 마련된 민족대단합, 애국애족의 경륜과 전통을 귀중히 여기고 적극 살려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조국강호가 외세의 군화탈을 벗기고 민족의 혈맥이 끊기우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의 독립과 나라의 통일을 이

루하기 위한 오랜 투쟁에서 마련된 민족대단합, 애국애족의 경륜과 전통을 귀중히 여기고 적극 살려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조국강호가 외세의 군화탈을 벗기고 민족의 혈맥이 끊기우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의 독립과 나라의 통일을 이

루하기 위한 오랜 투쟁에서 마련된 민족대단합, 애국애족의 경륜과 전통을 귀중히 여기고 적극 살려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조국강호가 외세의 군화탈을 벗기고 민족의 혈맥이 끊기우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의 독립과 나라의 통일을 이

루하기 위한 오랜 투쟁에서 마련된 민족대단합, 애국애족의 경륜과 전통을 귀중히 여기고 적극 살려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조국강호가 외세의 군화탈을 벗기고 민족의 혈맥이 끊기우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의 독립과 나라의 통일을 이

루하기 위한 오랜 투쟁에서 마련된 민족대단합, 애국애족의 경륜과 전통을 귀중히 여기고 적극 살려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조국강호가 외세의 군화탈을 벗기고 민족의 혈맥이 끊기우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의 독립과 나라의 통일을 이

루하기 위한 오랜 투쟁에서 마련된 민족대단합, 애국애족의 경륜과 전통을 귀중히 여기고 적극 살려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조국강호가 외세의 군화탈을 벗기고 민족의 혈맥이 끊기우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의 독립과 나라의 통일을 이

루하기 위한 오랜 투쟁에서 마련된 민족대단합, 애국애족의 경륜과 전통을 귀중히 여기고 적극 살려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조국강호가 외세의 군화탈을 벗기고 민족의 혈맥이 끊기우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의 독립과 나라의 통일을 이

루하기 위한 오랜 투쟁에서 마련된 민족대단합, 애국애족의 경륜과 전통을 귀중히 여기고 적극 살려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조국강호가 외세의 군화탈을 벗기고 민족의 혈맥이 끊기우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의 독립과 나라의 통일을 이

루하기 위한 오랜 투쟁에서 마련된 민족대단합, 애국애족의 경륜과 전통을 귀중히 여기고 적극 살려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조국강호가 외세의 군화탈을 벗기고 민족의 혈맥이 끊기우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의 독립과 나라의 통일을 이

루하기 위한 오랜 투쟁에서 마련된 민족대단합, 애국애족의 경륜과 전통을 귀중히 여기고 적극 살려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조국강호가 외세의 군화탈을 벗기고 민족의 혈맥이 끊기우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의 독립과 나라의 통일을 이

루하기 위한 오랜 투쟁에서 마련된 민족대단합, 애국애족의 경륜과 전통을 귀중히 여기고 적극 살려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조국강호가 외세의 군화탈을 벗기고 민족의 혈맥이 끊기우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의 독립과 나라의 통일을 이

루하기 위한 오랜 투쟁에서 마련된 민족대단합, 애국애족의 경륜과 전통을 귀중히 여기고 적극 살려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조국강호가 외세의 군화탈을 벗기고 민족의 혈맥이 끊기우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의 독립과 나라의 통일을 이

루하기 위한 오랜 투쟁에서 마련된 민족대단합, 애국애족의 경륜과 전통을 귀중히 여기고 적극 살려나가야 합니다.』

통할 수 없는 이중기준

얼마전 일본이 남부에 있는 대나가시 미우주엔에서 《E-2A》로켓을 떠 올려 정보수집성을 켜도 제대로 제작했다. 문제는 그것이 우리 나라를 감시하기 위한 간첩성이었는데 있다. 일본당국자들은 이번 위성발사로 우리의 탄도로에 트발사에 대한 정보수집능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떠들어댔으며 이를 스스로 시인하였다.

지난 1월에도 군사통신성을 촬영한 일본은 우리 풍화국에 대한 정함을 목적으로 한 간첩성을 또다시 발사한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사례였다.

일본은 빠르게 강행하고 있는 군사위성 발사들을 군사정책의 신불, 대조선세계화의 뿌듯한 발로로써 말리는 줄 알았다. 더우기 우주의 정화작용을 운용하고 있는 일본은 물을위해 주민 국가를 계단한 군사위성들을 쏴올리고 있다고 볼 때 이러한 행위를 보다 엄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일본당국자들은 《우주는 전 인류의 정화작용을 위한 미대》이란다. 《우주군사화의 실상에 우려를 표시한다》는 일본이 세계에서 세워 끝장을 놓려다온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국제사회를 기만하기 위한 한짓 침탈원 소리에 불과하다.

1900년대 말부터 우주의 군사적력을 위한 계획과 그 준비에 바쳐온 일본은 2000년부터 각이한 운도의 군사위성들을 출동시켜 세계를 작하였다. 그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 바로 우주의 《핵, 미사일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다. 오늘 정보수집성, 관측위성, 통신위성이라는 명칭을 달고 우주공간을 떠나고 있는 일본의 적지 않은 위성들이 군사적 목적으로 펴놓고 있다는 것은 공개된 비밀이다.

일본의 정보수집위성들은 놓고보아도 그렇다. 처음에 일본은 이 위성들을 저전, 대량, 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상황관련 정보들을 수집한다고 광고하였다. 하지만 양다가비 걸어놓고 말고기 파는 것으로 놀아내는 일본의 악습이야 어디에 가겠는가. 알려진데 의하면 정보수집위성들은 명백히 정찰위성들로서 우리의 일거일동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는 것들이다.

의신자료에 의하면 현재 일본은 정보수집을 위해 3개의 광학위성들을 주간 감시용으로, 3개의 베이다워성을 야간감시용으로 유지 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발사될 위성도 수명이 다친 베이다워성을 대신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은 전망적으로 10개의 정찰위성들을 제작하는 계획을 갖추려 하고 있다.

인간의 복리와 생명발달을 위하여 경화적으로 펴놓여야 할 주주용간을 블순한 목적 실현에 압박하며 지역의 정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일본은 세계의 규탄을 받아온 미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그 주변국들은 이번에도 빠즈소리 한마디 내지 않고 있다. 하기는 별로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었다. 미국은 오늘까지 전립국 일본이 10여 차례에 걸쳐 군사위성들을 발사하였지만 언제 한번 이에 대해 거부하니 떠든적이 없다.

이것은 우주의 정화적 목적의 위상을 말사할 때마다 그토록 악명을 듣구는데는 분주함을 피우면 까닭은 우주전쟁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표명하고 있다. 유엔은 세계에서 우주전쟁을 막기 위해 한 번이라도 조선은 만도미씨일 기술을 빠르게 활용한 발사와 관련하여 그 어떤 형태의 기술력으로 전쟁할 수 없다.』고 코로나바운 날강도적인 『결의』까지 날조해냈다.

미국이 예전에 우파도 모도미씨일기술을 빠르게 활용해 위성을 발사하였다고 결고하는데 그렇다면 미국은 물론 다른 나라들에서는 대로나 풍선으로 그 술한 위성을 블리고 놓았던 우주전쟁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표명해온 것이다. 유엔이 부여한 중대한 입후와는 배치되는 세계평화에 호의인들로부터 미국의 폭우각사, 심부름꾼, 거수기비는 비단과 조선을 받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유엔이 부여한 중대한 입후와는 배치되는 세계평화에 호의인들로부터 미국의 폭우각사, 심부름꾼, 거수기비는 비단과 조선을 받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유엔이 부여한 중대한 입후와는 배치되는 세계평화에 호의인들로부터 미국의 폭우각사, 심부름꾼, 거수기비는 비단과 조선을 받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그 주변국들은 이번에도 빠즈소리 한마디 내지 않고 있다. 하기는 별로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었다. 미국은 오늘까지 전립국 일본이 10여 차례에 걸쳐 군사위성들을 발사하였지만 언제 한번 이에 대해 거부하니 떠든적이 없다.

이것은 우주의 정화적 목적의 위상을 말사할 때마다 그토록 악명을 듣구는데는 분주함을 피우면 까닭은 우주전쟁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표명하고 있다. 유엔은 세계에서 우주전쟁을 막기 위해 한 번이라도 조선은 만도미씨일 기술을 빠르게 활용한 발사와 관련하여 그 어떤 형태의 기술력으로 전쟁할 수 있다.

우리는 이 기회에 일본의 무분별한 군사위성들을 묵인하면서도 우주의 정화적 우주개발활동은 범죄로 물어붙이 고 있는 것이다.

고있는 것이다.

구레여 우주의 위성발사에 대해 말한 다면 그것은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로서 그 누가 이해하지 못해 하며 베릴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유엔현장과 우주조약을 비롯한 국제법들의 그 어려에도 누구는 위성발사를 해도 되고 누구는 하면 안된다고 규제한 문구는 없다. 더욱이 우파 풍선은 위성발사문제로 마찬가지이다. 우리

인천보장비 사회의 그릇된 처사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해 존재하는 유엔안전보장비 사회는 자기의 사명과 임무에 맞게 모든 국제문제에 험직이고도 험직한 일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위성발사문제로 마찬가지이다. 우리

의 일거일동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을 비롯한 국제법들의 그 어려에도 누구는 위성발사를 해도 되고 누구는 하면 안된다고 규제한 문구는 없다. 더욱이 우파 풍선은 위성발사문제로 마찬가지이다. 우리

의 일거일동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을

비록 그들이 이해하지 못해 하며 베릴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유엔현장과 우주조약을 비롯한 국제법들의 그 어려에도 누구는 위성발사를 해도 되고 누구는 하면 안된다

고 규제한 문구는 없다. 더욱이 우파 풍선은 위성발사문제로 마찬가지이다. 우리

의 일거일동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을

비록 그들이 이해하지 못해 하며 베릴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유엔현장과 우주조약을 비롯한 국제법들의 그 어려에도 누구는 위성발사를 해도 되고 누구는 하면 안된다

고 규제한 문구는 없다. 더욱이 우파 풍선은 위성발사문제로 마찬가지이다. 우리

의 일거일동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을

비록 그들이 이해하지 못해 하며 베릴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유엔현장과 우주조약을 비롯한 국제법들의 그 어려에도 누구는 위성발사를 해도 되고 누구는 하면 안된다

고 규제한 문구는 없다. 더욱이 우파 풍선은 위성발사문제로 마찬가지이다. 우리

의 일거일동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을

비록 그들이 이해하지 못해 하며 베릴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유엔현장과 우주조약을 비롯한 국제법들의 그 어려에도 누구는 위성발사를 해도 되고 누구는 하면 안된다

고 규제한 문구는 없다. 더욱이 우파 풍선은 위성발사문제로 마찬가지이다. 우리

의 일거일동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을

비록 그들이 이해하지 못해 하며 베릴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유엔현장과 우주조약을 비롯한 국제법들의 그 어려에도 누구는 위성발사를 해도 되고 누구는 하면 안된다

고 규제한 문구는 없다. 더욱이 우파 풍선은 위성발사문제로 마찬가지이다. 우리

의 일거일동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을

비록 그들이 이해하지 못해 하며 베릴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유엔현장과 우주조약을 비롯한 국제법들의 그 어려에도 누구는 위성발사를 해도 되고 누구는 하면 안된다

고 규제한 문구는 없다. 더욱이 우파 풍선은 위성발사문제로 마찬가지이다. 우리

의 일거일동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을

비록 그들이 이해하지 못해 하며 베릴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유엔현장과 우주조약을 비롯한 국제법들의 그 어려에도 누구는 위성발사를 해도 되고 누구는 하면 안된다

고 규제한 문구는 없다. 더욱이 우파 풍선은 위성발사문제로 마찬가지이다. 우리

의 일거일동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을

비록 그들이 이해하지 못해 하며 베릴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유엔현장과 우주조약을 비롯한 국제법들의 그 어려에도 누구는 위성발사를 해도 되고 누구는 하면 안된다

고 규제한 문구는 없다. 더욱이 우파 풍선은 위성발사문제로 마찬가지이다. 우리

의 일거일동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을

비록 그들이 이해하지 못해 하며 베릴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유엔현장과 우주조약을 비롯한 국제법들의 그 어려에도 누구는 위성발사를 해도 되고 누구는 하면 안된다

고 규제한 문구는 없다. 더욱이 우파 풍선은 위성발사문제로 마찬가지이다. 우리

의 일거일동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을

비록 그들이 이해하지 못해 하며 베릴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유엔현장과 우주조약을 비롯한 국제법들의 그 어려에도 누구는 위성발사를 해도 되고 누구는 하면 안된다

고 규제한 문구는 없다. 더욱이 우파 풍선은 위성발사문제로 마찬가지이다. 우리

의 일거일동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을

비록 그들이 이해하지 못해 하며 베릴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유엔현장과 우주조약을 비롯한 국제법들의 그 어려에도 누구는 위성발사를 해도 되고 누구는 하면 안된다

고 규제한 문구는 없다. 더욱이 우파 풍선은 위성발사문제로 마찬가지이다. 우리

의 일거일동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을

비록 그들이 이해하지 못해 하며 베릴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유엔현장과 우주조약을 비롯한 국제법들의 그 어려에도 누구는 위성발사를 해도 되고 누구는 하면 안된다

고 규제한 문구는 없다. 더욱이 우파 풍선은 위성발사문제로 마찬가지이다. 우리

의 일거일동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을

비록 그들이 이해하지 못해 하며 베릴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유엔현장과 우주조약을 비롯한 국제법들의 그 어려에도 누구는 위성발사를 해도 되고 누구는 하면 안된다

고 규제한 문구는 없다. 더욱이 우파 풍선은 위성발사문제로 마찬가지이다. 우리

의 일거일동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을

비록 그들이 이해하지 못해 하며 베릴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유엔현장과 우주조약을 비롯한 국제법들의 그 어려에도 누구는 위성발사를 해도 되고 누구는 하면 안된다

고 규제한 문구는 없다. 더욱이 우파 풍선은 위성발사문제로 마찬가지이다. 우리

의 일거일동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을

비록 그들이 이해하지 못해 하며 베릴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유엔현장과 우주조약을 비롯한 국제법들의 그 어려에도 누구는 위성발사를 해도 되고 누구는 하면 안된다

고 규제한 문구는 없다. 더욱이 우파 풍선은 위성발사문제로 마찬가지이다. 우리

의 일거일동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을

비록 그들이 이해하지 못해 하며 베릴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유엔현장과 우주조약을 비롯한 국제법들의 그 어려에도 누구는 위성발사를 해도 되고 누구는 하면 안된다

고 규제한 문구는 없다. 더욱이 우파 풍선은 위성발사문제로 마찬가지이다. 우리

의 일거일동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을

비록 그들이 이해하지 못해 하며 베릴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유엔현장과 우주조약을 비롯한 국제법들의 그 어려에도 누구는 위성발사를 해도 되고 누구는 하면 안된다

고 규제한 문구는 없다. 더욱이 우파 풍선은 위성발사문제로 마찬가지이다. 우리

의 일거일동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을

비록 그들이 이해하지 못해 하며 베릴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유엔현장과 우주조약을 비롯한 국제법들의 그 어려에도 누구는 위성발사를 해도 되고 누구는 하면 안된다

고 규제한 문구는 없다. 더욱이 우파 풍선은 위성발사문제로 마찬가지이다. 우리

의 일거일동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을

비록 그들이 이해하지 못해 하며 베릴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유엔현장과 우주조약을 비롯한 국제법들의 그 어려에도 누구는 위성발사를 해도 되고 누구는 하면 안된다

고 규제한 문구는 없다. 더욱이 우파 풍선은 위성발사문제로 마찬가지이다. 우리

의 일거일동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을

비록 그들이 이해하지 못해 하며 베릴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유엔현장과 우주조약을 비롯한 국제법들의 그 어려에도 누구는 위성발사를 해도 되고 누구는 하면 안된다

고 규제한 문구는 없다. 더욱이 우파 풍선은 위성발사문제로 마찬가지이다. 우리

의 일거일동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을

비록 그들이 이해하지 못해 하며 베릴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유엔현장과 우주조약을 비롯한 국제법들의 그 어려에도 누구는 위성발사를 해도 되고 누구는 하면 안된다

고 규제한 문구는 없다. 더욱이 우파 풍선은 위성발사문제로 마찬가지이다. 우리

의 일거일동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을

비록 그들이 이해하지 못해 하며 베릴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유엔현장과 우주조약을 비롯한 국제법들의 그 어려에도 누구는 위성발사를 해도 되고 누구는 하면 안된다

고 규제한 문구는 없다. 더욱이 우파 풍선은 위성발사문제로 마찬가지이다. 우리

의 일거일동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을

비록 그들이 이해하지 못해 하며 베릴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유엔현장과 우주조약을 비롯한 국제법들의 그 어려에도 누구는 위성발사를 해도 되고 누구는 하면 안된다

고 규제한 문구는 없다. 더욱이 우파 풍선은 위성발사문제로 마찬가지이다. 우리

의 일거일동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을

비록 그들이 이해하지 못해 하며 베릴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유엔현장과 우주조약을 비롯한 국제법들의 그 어려에도 누구는 위성발사를 해도 되고 누구는 하면 안된다

고 규제한 문구는 없다. 더욱이 우파 풍선은 위성발사문제로 마찬가지이다. 우리

의 일거일동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을

비록 그들이 이해하지 못해 하며 베릴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유엔현장과 우주조약을 비롯한 국제법들의 그 어려에도 누구는 위성발사를 해도 되고 누구는 하면 안된다

고 규제한 문구는 없다. 더욱이 우파 풍선은 위성발사문제로 마찬가지이다. 우리

의 일거일동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을

비록 그들이 이해하지 못해 하며 베릴 성격의 문제가